

浙江越秀外国语学院东北亚研究中心

2022年11月工作动态

【会议动态】我校东北亚研究中心诸葛蔚东教授线上参加世界图书生命指数研讨会

10月8日，我校东北亚研究中心诸葛蔚东教授线上参加北京外国语大学主办的世界图书生命指数研讨会。会议主要探讨世界图书生命指数的概念、内涵，为中国文化走出去、中国媒体走出去以及国际传播能力建设的研究提供科学、客观的数据和研究方法。

【会议动态】我校东北亚研究中心常务副主任金健人教授赴杭州参加第23届中国韩国学学术研讨会

2022.11.4-11.6，我校东北亚研究中心常务副主任金健人教授赴杭州参加第23届中国韩国学学术研讨会。会议由杭州师范大学外国语学院，浙江越秀外国语学院东北亚研究中心共同举办。

第 23 届中国韩国学学术研讨会

线上会议指南

(腾讯会议)

2022 年 11 月 5 日



开幕式及主旨发言

会议室: 525-872-295 密码: 19307

政治·经济组

ID: 233-384-245

密码: 无

语言·教育组

ID: 711-625-614

密码: 无

文学组

ID: 430-990-627

密码: 无

历史组

ID: 613-173-635

密码: 无

2022 年 11 月 6 日

主旨发言及闭幕式

会议室: 257-651-330 密码: 19307

政治·经济组

ID: 496-696-009

密码: 无

语言·教育组

ID: 256-752-784

密码: 无

文学组

ID: 971-645-299

密码: 无

主办

杭州师范大学外国语学院
浙江越秀外国语学院东北亚研究中心

承办

浙江省中韩经济文化交流研究会

协办

浙江越秀外国语学院学报
《语言与文化论坛》

中 방역완화에 항공편 늘었다

중국행 비행기 가격 18% 하락

지난 2년 동안 1만 위안, 심지어 10만 위안까지 치솟았던 중국행 항공권 가격이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13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중국대사관인 중국행 승객의 탑승 전 핵산 검사 정책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중국행 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내에 1회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증명서로 건강마(健康码)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탑승전 48시간 이내 2회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국제 비즈니스 교류가 늘고, 항공사 국제노선의 여객수도 늘어나 항공사의 손실도 줄어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국제선 운항편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새 비행 시즌에 계획된 국제선 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국제선 항공편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 2년 동안 특히 1만 위안, 심지어 10만 위안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했던 귀국 항공권 가격도 내리막이 시작했다. 최근 항어종횡(航旅纵横)의

통계에 따르면, 11월 출입국 노선의 평균 요금(세금 제외)은 약 8783위안으로 전월 대비 약 18% 하락했다. 항어종횡의 데이터에 따르면 11.1~11.10. 국내 항공사의 출입국 여객 수송량은 7만 8000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배를 기록했다. 11월 가장 인기가 높은 입국 노선 10위는 서울-상하이, 타이베이-상하이, 홍콩-상하이, 도쿄-상하이, 홍콩-베이징, 싱가포르-상하이, 방콕-상하이, 홍콩-청두, 프랑크푸르트-베이징, 도쿄-디렌으로 나타났다.

신화영 기자

“오랜만에 만난 미·중 정상에 세계 긴장 완화”

中 언론, 발리 정상회담 양국 관계사에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环球网)가 14일 오후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세계 긴장 정서를 완화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15일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지난 1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랜만에 재회한 양국 정상에 화기애애한 장면이 각종 위기와 도전으로 긴장하고 있는 세계 정서를 완화하고 위태로운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사에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악화되면서 신장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으며 ‘미·중 군사 충돌의 심각한 결과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함께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

다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3시간 12분간 지속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의 전략적 문제, 중대한 글로벌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 장소로 발리 중국 대표단 숙소로 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문은 이번 회담 장소는 미국 대표단 숙소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중국 대표단 숙소로 미국 측이 먼저 제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양국 관계가 악화한 데는 때때로 미국의 일방적인 도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표정했다. 이어 “빙을 단 사람이 빙을 땀내야 한다(解鈴还须系铃人)”는 성어를 인용해 미국이 정확한 태도와 실제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미·중 관계는 정상 계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제시한 ‘불무의(四不一无)’ 약속을 ‘불사무의(五不一无)’로 재차 확장했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은 중국의 체제를 존중해 ▲중국 체제 변화 ▲신냉전 ▲우호국 관계 강화로 중국 위협 ▲대만 독립 ▲두 개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 발생 ▲중국과 관계 단절 ▲중국 경제 발전 방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은 미중 관계는 더 이상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물론 복잡한 양국 관계가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나 이번 회담은 양국이 여전히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는 양국이 구체적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이민혁 기자

제23회 중국 한국학 학술대회 중한 수교 30주년 기념대회 개최

신시대 중국 한국학 연구의 혁신과 발전 주제



(1면에 이어) 주귀홍(周桂洪) 30년이란 주제로 저성성의 패주한중국대사, 김승호 주한국학 연구를 전반적으로 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 왕단(王丹) 베이징대 교수, 천용주(陳永周) 항저우사범대 부총장, 저우민(周敏) 항저우사범대 외국어대학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푸단대 스웨인 화(石源华), 연변대 김철준, 한국 아주대 송현호, 베이징대 선당창(沈定昌) 등 6명의 학자를 초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분과 토론에서는 정치, 경제, 역사, 문학, 언어, 번역,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주제로 80여 편의 한국학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대회 폐회식에서는 저성성 중한경제문화교류연구원 명예회장이 진젠런(金健人) 교수가 ‘저성성의 한국학 연구

PES 특례영어 전문학원
Practice Earns Success & Proliferation

SINCE 2008

문의 및 상담

PES 영어전문학원 정규반 16기

* 내신의 전공적합성과 공인성적(SAT)이 중요해지는 입시환경!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길

PES 정규반 1		PES 정규반 2		PES 개인 수업
SAT A	READING / W & L	TOEIC (G12)	READING & LISTENING	ESSAY & TOEFL 정규반 준비과정
SAT B	READING / W & L	SAT 실전반	고득점 완성 과정	
SAT C	READING / W & L	SAT (한국학교반)	연고대 이공계/자유전공 /상경계 지원학생 대상	

구비! 해성학교 및 온 스타벅스 건물 5-601 |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 토 20:30~22:00 / 일 19:00~22:00 | 특강중 상담 화~일 14:00~18:00 | ☎ 136 4179 6370



상하이저널

DR-SP
3당 및 예약 131 2229 8075

통증 침·뜸 참 잘 놓는 곳

복수문길동호동1679호3층 전화 021-5187-7838 (이메일, SMS)

고객센터: 021 6208 9002

shanghaibang.com

제1202호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중국 대학생들의 우리말 겨루기

상하이한중다문화협회, 한중수교 30주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상하이 화동 15개 대학 20명 참여, 총영사상 상하이외국어대학 치우에신(齐跃新) 수상



상하이 화동지역 중국인 대학생들이 모여 우리말 실력을 겨뤘다. 상하이한중다문화협회(회장 배승동)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상하이 화동지역 15개 대학 20여 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통과한 9명 학생이 지난 11일 한중다문화센터에서 본격적인 실력 겨루었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인 총영사상에는 신경숙 작가의 〈얼마를 부탁해〉로 참가한 상하이외국어대학 치우에신(齐跃新) 학생이 차지했다.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주최한 상하이한중다문화협회(상다협) 배승동 회장은 심사를 마치고 "말과 글은 곧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중국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무대가 되고, 한

국어과 교수님과 학생들께 한국 문화교육의 멘토가 되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오신 한국어과 교수님들께서는 30년 동안 중국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 지도에 힘써 왔다. 한국어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30년에 한국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리라 기대한다"라며 우리 문화와 우리글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에는 푸단대 배중식 교수, 상하이외국어대학 김혜정 교수, 상하이해양대

김계희 교수, 상하이상학원(商学院) 최혜연 교수, 조용선 교육영사, 영수 코트와 상하이무역관장, 배동 산다립 회장이 참여했다. 올해 한국어말하기대회 예선에 상하이 푸단대학, 외국어대학, 해대, 상학원을 비롯, 난징사범대학, 우저우대학, 항저우사범대학, 저외국어대학, 저장월수외국어학원(浙江越秀外国语学院), 저장수인학(浙树人学院), 양저우대학, 장쑤해안대학(盐城学院), 연청사범대학, 쉬저우공정학원 학생 19명이 참여했다. 상다협이 주최한 이번 한국어말하기대회는 해가 갈수록 한국어학과 지원율이 낮아지고, 우수 실적으로 졸업해도 전망이 불투명해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말을 꾸준히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격려하는데 의미가 있다.

고수미 기자

한중수교 30주년 한국어말하기대회 수상자

구분	수상자	부속
특별상 (총영사상)	齐跃新(上海外国语大学)	신경숙 <얼마를 부탁해>
1등상 (상해한국상회장상)	王琴(上海海事大学)	윤동주 <별 에는 밤 서사>
2등상 (코트상)	马文字(上海商学院)	김예란 <여명소>
3등상 (다문화학회상)	徐佳妮(上海对外经贸大学)	손유정 <이문도>
	薛佳妮(盐城师范学院)	한강 <애지조심>
	徐亚楠(上海商学院)	김나도 <아프니까 천천히>
	许君(浙江树人学院)	김나도 <아프니까 천천히>
	刘建怡(徐州工程学院)	정지용 <황소>
		장동주 <SAID>

중韓수교 30주년 '중국 한국학 학술대회' 杭州서 열려

중국 최대 규모 '한국학' 학술 행사, 140여 학자 참여

항저우사범대학교와 저장월수외국어대학교가 공동으로 지난 '제23회 중국 한국학 학술대회' 및 중한 수교 30주년 기념대회를 11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항저우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신시대 중국 한국학 연구의 역



신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140여 명의 학자가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참여했다. >> 7면에 계속

GOLFZON VISION TWVISION GDR

골프존 전 매장 정상 영업

1호점 (闵行区 闵奉路55号 嘉和PLUS酒店 2층) 021 3429 3669
2호점 (闵行区 虹莘路3988号 迪逊广场 4층) 021 3326 9598
3호점 (闵行区 沪闵路480号 3층) 021 3451 3058

고민이 없고 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종합병원

자후미국제병원

上海市虹口区四川北路1000号 TEL: 136 1633 6702 400 800 3000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경험하라

BJFEZ INFRA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에 위치합니다! |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인근: 불동량 세계 6위 부산항 신항, 공항, 철도로 이어지는 최첨단유통망의 최리서 | 8백만명에 달하는 인근 지역 소비자 시장과 노동인구, 총 97%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풍부한 인력 자원 |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뛰어난 정부지원 및 각종 행정 편의 제공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 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



【会议动态】我校东北亚研究中心常务副主任金健人教授赴杭州参加中韩经济文化交流研讨会 2022 年年会暨中韩共同服务建设论坛

11 月 12 日，“中韩经济文化交流研究会 2022 年年会暨中韩共同富裕建设论坛”在浙江树人学院召开。恰逢中韩建交“而立之年”，会议以期进一步提升中韩两国和平友好交流，对浙江省共同富裕起到重要作用。会议作为浙江省社科学术年会的分论坛，由浙江省中韩经济文化交流研究会主办、浙江树人学院人文与外国语学院承办。国内外十余所高校及研究院相关领域的专家、学者和教师参与。

会议通过三场主旨报告和二十场发言，从教学、科研两个角度出发，重点围绕韩国推进共同富裕举措对浙江省的启示和借鉴，中韩在共同富裕建设中合作的可行性、面临的问题和对策，中韩建交 30 周年回顾和展望等主题展开研讨，具体内容涉及韩国学研究、专业人才培养、韩国语教育、中韩经贸、中韩政治外交、中韩文化交流、中韩文学研究等多个方面。

韩国学专家金秉运教授、浙江省中韩经济文化交流研究会常务副会长金健人教授和浙江树人学院科研处副处长万国伟教授分别以“我国韩国学研究现状及课题”“浙江韩国研究30年”“浙江乡村推进共同富裕的理论与实践探索”为主题作主旨发言。



研究会常务副会长金健人教授作主旨发言

https://article.xuexi.cn/articles/index.html?art_id=16292183428153992474&cdn=https%3A%2F%2Fregion-zhejiang-resource&study_style_id=feeds_opaque&reco_id=101f4a79624cc0a822350007&share_to=wx_single&study_share_enable=1&study_comment_disable=1&ptype=0&item_id=16292183428153992474&pid=&source=share